https://doi.org/10.31821/HEM.89.3

‘신어’를 활용한 국어 교육 방안

송현주*

‖ 차 례 ‖

Ⅰ. 들머리
Ⅱ. 신어 교육의 현황
Ⅲ. 신어 교육의 새로운 방안
Ⅳ. 마무리

【국문초록】

2015 교육과정에서 신어를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과목은 ‘언어와 매체’이며 ‘국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에서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이라는 내용 요소로 다루어진다. 교과서에서는 신어가 직접적인 교육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형성하는 한 방법인 축약의 사례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어 사용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어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신어에 대한 기존의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어를 활용한 국어교육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어는 형태적, 문법적, 의미적, 기능적인 면에서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신어를 형태론적 차원에서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흥미로운 어휘 자원으로서 갖는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제적 언어 자료이므로, 자료 수집에서부터 비교·분석, 설명, 언어생활 성찰하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신어의 사용 추이를 살펴본다거나 신어사전의 내용을 직접 집필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어를 통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어가 우리 사회문화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어는 단순히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선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제어 : 신어, 새말, 국어 교육, 언어와 매체, 언어적 특성, 탐구 학습, 사회문화적 특성

Ⅰ. 들머리

국립국어원(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신어 조사를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다. 1994년에 시작된 신어 조사 사업은 매년 새롭게 나타난 신어를 수집하여 발표함으로써, 신어와 관련한 다양한 국어학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신어에 관한 초기 연구는 신어의 조어법상의 특성에 주로 초점이 놓여 있었던데 반해(문금현 1999, 노명희 2006, 전정미·최동주 2007) 최근에는 신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어의 어휘적 특성이나 의미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다. 사회 변동에 따른 어휘 변화(최혜원 2018), 외래어 신어의 특성(이선영 2018), 극한 표현을 중심으로 한 신어 생성 경향(문금현 2019)과 같은 신어 어휘가 갖는 새로운 특성에 주목한 연구와 함께 20세기 초 신어에 대한 연구(빅형익 2004, 김태훈·박상진 2011, 김한샘 2014)도 활발하다. 또한, 신어의 의미 구성(김억조 2020a, 2020b), 의미관계(최형용 2019), 의미적 신어(남길임

외 2019)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둘째, 대량의 언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의 도입에 따라 신어 추출과 정착, 사용 추이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어의 정착 및 미정착(이선영 2007, 김일환 2014, 현영희 2016, 김지혜 2018, 2019, 서혜진 2018), 신어 사용의 추이(남길임 2015, 2019, 남길임 외 2017, 정한데로 2015, 2017, 이수진 2020), 신어 추출 방법론(김동의·이상곤 2013, 이수진·김예니 2014), 신어의 빈도(남길임 2020) 등이 있다.

셋째, 신어가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신어의 사회문화적 의미(남길임·송현주·최준 2015, 김한샘 2015, 정한데로 2019, 박선옥 2019)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으며, 신어를 통한 소비 트렌드 분석(이준영·이제성 2016) 등 신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유형 외에도 신어에 대한 신어의 사전 처리(도원영 2007, 이유원 2019), 신문기사에서 신어가 재현된 양상에 대한 연구(최신인·최은정 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신어 연구(최은희 2015, 이현정 2015) 등 신어 연구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1)]

이에 반해, 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새말 교육의 현황과 대안(남택승 2016, 2019, 전승태 2018), 새말 만들기 교육 내용과 방법(임지룡 외 2005, 박혜진 2017), 새말을 대상으로 담화 중심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논의(김규훈·김혜숙 2012) 등에서 보듯이 신어를 국어 문법 영역 중 단어 형성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해 왔으며, 국어 어휘 교육의 대상으로서 신어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듯하다.[2)]

---

1)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9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새국어생활』 29권 3호에는 ‘모던걸에서 네넴띤까지-신어의 탄생과 진화’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특집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지금까지 신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가 신어를 통해 언어 자료를 탐구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하고, 신어가 갖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신어가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신어가 교육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신어 교육의 현황

여기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신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3] 2015 교육과정에서 신어를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과목은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이며,[4] 내용 체계상 '국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에서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이라는 내용 요소로 다루어진다. 먼저, 교육과정에 제시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신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말이 '새롭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다만, 이 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용어들 가운데 현재 학계에서는 '신어'와 '신조어'가 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남길임·이수진 2016: 10). 국어학계와는 달리 국어 교육 학계에서는 '신어'가 아니라 '새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용어 중에 좀 더 널리 쓰이는 '신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새로움'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신어, 새말, 신조어, 신생어'와 같은 다양

3)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 교육과정에서 새말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내용은 남택승(2016, 2019)에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전승태(2008)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14종을 대상으로 새말 교육의 현황을 비교 제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이래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새말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변화가 없진 않았으나, 여전히 단어 형성법의 차원에서 새말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새말 교육이 중학교 <국어>에서 이루어졌으나, 현행 2015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신어가 갖는 어휘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1) a. 성취기준 :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b.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④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을 탐구하고 국어생활에 활용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가상 공간에서 널리 쓰이는 새말이 **어떤 짜임을 갖는지, 기존의 단어와 형성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스스로 새말을 만들어 보는 활동 등을 포함하여 **능동적인 국어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위의 (1)에서 보다시피,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신어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도 기존의 단어와 형성 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능동적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5)]

그런데 현행 교육과정상 신어 교육은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에만 초점이 놓여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신어는 형태론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미적 특성, 기능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등 다층적인 측면에서 교육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단어의 짜임’을 교수학습하는 데 신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어 자체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다.[6)]

다음으로, 최형용 외(2019)와 이삼형 외(2019)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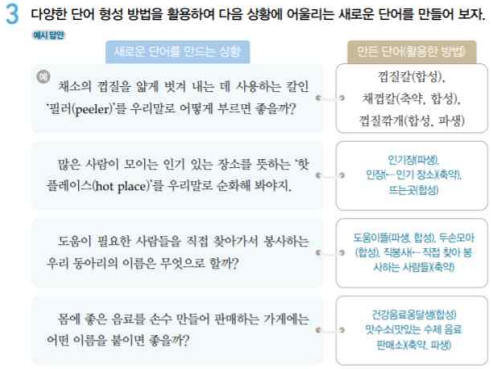
---

5) 남택승(2016: 137)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 처음으로 ‘새말’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6) 최신인·최은정(2015: 239)에서는 국어 교육적 시사점으로 “① 신조어를 바라보는 다층적인 관점 파악을 통해 신조어가 매우 입체적인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언어 재료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② 비판적 언어 인식 교육을 위한 언어 자료로서의 신조어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에 제시된 신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복합어 가운데는 합성어나 파생어로 간주하기 힘든 것도 있다. 최근 **축약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그 예이다**. '열공(열심히 공부함.)'과 '국대(국가 대표)'는 두 단어의 앞 음절만 따서 결합한 축약어이고, '칼제비(칼국수와 수제비를 한번에 맛볼 수 있는 음식)'와 '쌈추(쌈용 배추)'는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을 따서 결합한 축약어이다. 이들 축약어는 파생어보다는 합성어에 가깝지만 전형적인 합성어와는 차이가 있다. (최형용 외 2019: 69)[7]



〈그림 1〉 신어 관련 학습활동(최형용 외 2019: 74)

(3) **새말은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단어 형성법에 기대어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계의 이름을 '므랍'이라고 지을 수도 있고, '시간이동기'라고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사용해서 만든 것인데, 이름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후자는 '시간이동'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고 여기에 기계를 뜻하는 접미사 '-기

7) 이 교과서에서는 '두 단어의 앞 음절만 따서 결합한 축약어'와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을 따서 결합한 축약어'를 모두 '축약'이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임지룡(2018: 189-190)에 따르면 '혼성(blending)'은 '라볶이(라면+ 떡볶이), 구마고속도로(구미+ 마산)'과 같이 두 단어의 일부가 합쳐져서 새말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機)’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든 것인데, 이 경우에는 흔히 쓰이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활용한 것이므로 새말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새말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축약(縮約)을 통해 짧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릇 하나에 짬뽕과 짜장면을 반씩 담아 먹는 음식을 ‘짬짜면’이라고 부르는 것도 축약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나 사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외국말을 그대로 빌려 쓰는 차용어(借用語)가 활용되기도 한다. ‘므랍’이나 ‘시간이동기’와 같은 새말을 만드는 대신 ‘타임머신’을 쓰는 것이 그런 예이다.

실제 생활에서 새말을 만들어 쓰는 경우는 새로운 상품, 가게, 동호회 등의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새로운 개념과 사물의 등장에 따라 **새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새말을 아무렇게나 만들거나 무차별적으로 외국어로부터 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말을 만들 때에는 우리말의 단어 형성법에 맞도록 해야 하고, 차용어는 되도록 우리말로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 (이삼형 외 2019: 86)

5. 다음은 국립국어원의 『2014년 신어 조사 보고서』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아래 활동을 통해 새말에 관해 탐구해 보자.

새말	구조	뜻
맛저	맛있는 + 저녁	‘맛있는 저녁’ 을 줄여 이르는 말
베댓	best + 댓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
할빠	할아버지 + 아빠	손주를 직접 양육하는 할아버지

(1)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새말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서 위 표와 같이 정리해 보자.

새말	구조	뜻

(2) 위에서 작성한 표를 다른 모둠과 바꾸어 보고, 이러한 신어를 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 장점:

• 단점:

(3)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위해 새말을 만들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그림 2〉 신어 관련 학습활동(이삼형 외 2019: 88)

최형용 외(2019)에서는 소단원 ‘단어의 구조와 형성’ 아래에 단어 형성

법의 한 종류로 '축약'을 제시하면서 '새말'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이삼형 외(2019)에서는 소단원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아래 '새말 만들기'를 별도의 주제로 삼아 신어 만들기의 필요성, 신어를 만드는 방법, 신어를 만들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제시하는 등 최형용 외(2019)에 비해 새말 만들기에 관해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최형용 외(2019)와 이삼형 외(2019)의『언어와 매체』교과서에서는 단어 형성법과 관련하여 '합성, 파생, 축약'을 설명하고 있으며, 학습 활동에서 신어를 만들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어의 구조를 파악한 후 장단점을 토의해 보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학교문법에서는 단어 형성의 방법으로 '파생법'과 '합성법'을 주로 다루므로, 현행 교육과정에서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는 데 신어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가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즉, 합성과 파생을 중심으로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배우지만, 신어의 적지 않은 부분이 축약과 혼성의 방법으로 단어가 형성된다. 신어 중에서 합성과 파생의 예만 제시하는 것은 신어의 전모를 보여줄 수 없고, 축약과 혼성의 예도 함께 제시하면 합성과 파생법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실제 신어의 단어 형성법은 위의 세 가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혼성'은 축약과는 달리 두 단어 가운데 한 부분만 줄어들거나 두 단어 중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만을 결합하여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랩툰(랩×카툰), 라제비(라면×수제비), 혼행(혼자×여행), 꽃캉스(꽃×바캉스) 등의 신어가 있다.[8)]

8) 조어법에 따라 신어를 분류하면 2018년 신어의 경우 혼성이 31.5%, 축약이 16.2%이고, 2019년은 혼성이 32.7%, 축약이 23.5%를 차지한다. 최근 2년간의 신어만을

셋째, 최형용 외(2019)는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과 유의사항의 내용을 아주 소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성취기준에서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라고 하였으나 교과서에서는 축약이라는 단어 형성 방법이 있고, 그 예로 신어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신어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탐구할 기회가 부족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안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다양한 신어 사례와 함께 어떤 과정을 통해 단어가 형성되었는지 설명하고 국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9)]

최형용 외(2019)에서는 신어를 ‘국어 생활의 성찰’과 관련한 단원에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3>과 같은 가족 간의 대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사소통 문제와 연계하여 신어를 다루고 있는데, 학습의 주안점은 ‘나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 개선하기’이다.

살펴보더라도 혼성과 축약이 신어의 50% 내외에 이르므로 이 둘을 하나의 방법으로 묶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별개의 개념으로 교육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최형용 외(2019)에서는 ‘축약’과 ‘혼성’을 모두 아울러 ‘축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선택과목 수준에서 ‘어두 음절어’를 축약이라고 하고, ‘혼성’을 별도의 단어 형성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9) 국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예로는 ① 네이버 오픈사전, 우리말샘 등에서 신어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를 제시해 보는 것, ②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공모전에 참여해 보는 것(예. 광주광역시 시민사이버학습센터 이름 짓기 공모전,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 짓기 공모전), ③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림 3〉 신어 사용을 소재로 한 영상 자료(최형용 외 2019: 200)

교과서의 영상 자료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본문 내용이 이어진다.

(4) 이 상황에서 엄마와 딸은 아무런 문제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지만 아빠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아빠가 엄마와 딸이 사용하는 줄임말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음절 수가 많은 긴 단어를 간단히 말 하기 위해 몇 음절만 따서 줄여 말하고, 심지어 'ㅇㅋ'과 같이 음운만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과 소통할 때에 새로운 줄임말을 많이 만들어 내고, 그러한 말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한다. 이러한 말들은 **그 뜻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의사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상대가 그 말의 뜻을 잘 모른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딸은 자신이 사용하는 줄임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행이 지난 줄임말을 쓰는 아빠에게 '극혐'이라고 말하며 실망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줄임말이나 신조어의 뜻을 잘 모르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뜻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줄임말은 세대나 계층 간

의 대화 단절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최형용 외 2019: 201)

(5) 학습 활동 : 다음 활동을 하며 **줄임말과 신조어** 사용에 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① 나는 유행하는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잘 알고 있다.
②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에만 **줄임말과 신조어**를 사용한다.
③ 나는 대화를 할 때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④ 나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과제를 할 때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⑤ 내가 사용한 **줄임말이나 신조어**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적이 있다.
⑥ 나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을 몰라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

이 부분은 ‘[12언매04-02]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를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단원으로, ‘신어’를 직접적으로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언어생활의 실제 장면에서 신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인식에서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는’ 단원에 신어 사용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교과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4)의 교과서 본문에서 ‘생선, 버카충, 안습’ 등을 들어 ‘새말’을 ‘줄임말’과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고, (5)의 학습활동에서도 ‘줄임말과 신조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조어’ = ‘줄임말’처럼 인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새말에는 줄임말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신어 사용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다. <그림 2>에서 제시한

교과서의 영상 자료에서는 딸이 신어를 사용함에 따라 아버지와 딸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4)에서 보다시피, 교과서 본문에서는 신어가 갖는 장점인 '친밀감, 유대감, 소통의 경제성'과 함께 단점인 '의사소통의 문제, 대화 단절'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신어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기술하고 있긴 하지만 영상과 제시된 자료의 분량으로 볼 때, 신어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부각된다. 또한 (5)에서 신어의 장점이나 효용과 관련한 질문은 없는 데 반해 신어 사용의 단점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 '소외감을 느낌'에 대한 내용만 존재하므로 신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다.

셋째, 신어가 보여주는 당대 사회문화적 특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10] 신어는 새롭게 주목받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나 법률, 기술 등에 대한 명명의 필요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엉덩이력, 풀공강, 혼강(교육)', '의세권, 지옥고(주거)', '라제비, 짬짜볶(음식)', '민식이법, 공공 산후조리원법(법률)', '스쿨 로봇(기술)' 등이다. 따라서 신어가 의사소통의 장애를 유발하는 대상으로만 강조되기보다는 당대 현실을 보여주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Ⅲ. 신어 교육의 새로운 방안

여기에서는 신어를 활용한 국어 교육을 위해서 신어가 갖는 언어적 특

10) 최신인·최은정(2015: 225)에서 제시한 신조어 관련 신문보도의 프레임 유형을 보면, 언어파괴(27.5%), 소통 장애(9.8%), 언어 전략(19.6%), 사회 반영(43.1%)의 네 가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어는 언어를 파괴하고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언어 전략의 하나이자 사회를 반영하는 기능이 있음을 고르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해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탐구 학습의 주제이자 능동적 언어 사용자로서의 체험을 하며, 언어를 통해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1]

1. 언어적 특성에 대한 다층적 이해

지금까지 신어는 단어 형성법 차원에서만 교수학습되었으나, 신어는 형태적, 문법적, 의미적, 기능적인 면에서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신어를 형태론적 차원에서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흥미로운 어휘 자원으로서 언어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12]

먼저, 신어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신어는 합성과 파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가 형성된다. 따라서 다양한 신어의 사례를 제시하고, 합성과 파생을 넘어 국어의 단어 형성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a. 목욜(목요일), 걍(그냥), 셤(시험), 이케(이렇게), 넘나(너무나)
b. 현웃(현실 웃음), 감튀(감자 튀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세젤귀(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c. 엄빠(엄마×아빠), 단톡(단체×카카오톡),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럽스타그램(러브×인스타그램)
d. ㅇㅈ(인정), ㄱㅅ(감사), ㅊㅋ(추카〉축하)
e. 노오력(노력), 고오급(고급)

---

11) 이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교육 방안은 실제 교육 현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12) 이와 관련하여 박호관(2005)에서도 “신조어는 당대의 국어 특성을 잘 드러내는 언어 범주이며, 특히 언어의 생성과 변이, 소멸이라는 유기체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언어 교육 재료”임을 지적한 바 있다.

(6a)는 자음 또는 모음 축약을 통해 단어를 만든 경우이고, (6b)는 각 어절의 첫 번째 음절끼리 결합하여 축약된 두문자어(어두 음절어)에 해당하는데 구 단위를 넘어 절이나 문장 단위까지 줄여서 만드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6c)는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라 일부가 줄어든 혼성의 예이며, (6d)는 각 음절의 첫 자음만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이렇게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드는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6e)와 같이 '노력'과 '고급'의 의미를 강조하는 신어인 '노오력'과 '고오급'은 모음을 첨가하여 신어를 형성한 사례가 된다.

둘째, 신어의 문법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7) a. 아쉽아쉽, 줍줍, 부끄부끄
b. 여자여자하다, 분홍분홍하다
c. 당근$_1$이지! 당근$_2$. 당근$_3$ 갈 거야.

(7a)의 '아쉽-, 줍-, 부끄-'은 모두 용언의 어간 또는 어간의 일부이다. 국어 문법상 접사 없이 용언의 어간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7a)와 같은 신어가 사용된다. (7b)에서는 '명사+명사+하다' 구성의 형용사로서, 각각 '매우 여성스럽다, 하얀빛을 띠며 엷게 붉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역시 국어 조어법상 매우 드문 예이다. (7c)에서 '당근$_1$'은 명사, '당근$_2$'는 감탄사, '당근$_3$'은 부사로 사용된 것으로 '당근'이 '당연하다' 의미를 갖는 신어로 쓰이면서 그 품사를 바꾼 예가 된다.[13] 이처럼 신어는 단순히 새로운 어휘가 형성되는 형태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법적 차원에서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13) (7c)에서 제시한 예는 남길임·이수진(2016: 51-52)의 것이다. 문법적 신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남길임·이수진(2016)의 6장 '신어와 문법'을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신어의 의미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어휘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신어가 된다.

(8) a. 처음 등장했을 땐 OOO와 앙숙 관계로 재미를 더하더니, 막힌 속을 뻥 뚫는 대사와 행동으로 **사이다** 매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우리말샘』)
b. 국민은 **사이다**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온 건 정부의 **고구마** 답변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일보, 2020.08.16.)
c. 8잔루 키움 **고구마** 공격에 이정후가 뿌린 **사이다** 홈런 (스포티비, 2020.08.13.)

위의 예문 (8)에서 보인 ‘사이다, 고구마’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로, 의미적 신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어는 새로운 의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이다’와 ‘고구마’는 음식명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서로 의미적 관련성이 없지만, (8b), (8c)에서는 ‘사이다’와 ‘구고마’는 서로 반의관계에 놓이게 된다.

넷째, 신어가 갖는 다양한 기능적 특성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9) a. 디카, 스마트폰, 카톡, 카공족, 사이버 따돌림
b. 학종, 교세특, 세젤귀
c. 넴넴띤, 댕댕이, 띵곡, 커여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서에서는 신어가 갖는 부정적 속성, 주로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신어는 (9a)에서 보듯이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명명하고 재개념화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9b)에서처럼 긴 표현을 간단히 줄여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경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9c)와

같이 특정 음절을 비슷한 모양의 다른 음절로 바꿔 쓰는 것을 통해 신선함을 주는 언어 유희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14)]

요컨대, 지금까지 국어과에서 신어에 대한 교육은 단어 형성법 교육에서 소재로만 활용되어왔던 것에서 벗어나, 형태, 문법, 의미, 기능적 차원에서 신어 갖는 다양한 성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15)] 즉, 신어는 형태 차원에서 합성과 파생 이외의 축약, 혼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어가 형성됨을 알 수 있게 하며, 문법 차원에서 새로운 국어 문법 현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하다. 또한, 신어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기존의 단어가 다의어로 의미가 확장되고 이들 간에 새로운 의미관계를 형성하며, 의사소통상의 효율성과 즐거움을 알게 해 준다. 이러한 신어의 다양한 성격을 균형있게 교육한다면, 신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 탐구에서 능동적 활용까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의 '기능'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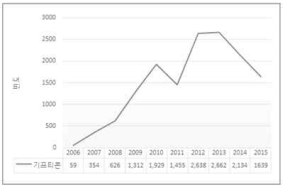
---

14) 이러한 유형을 '야민정음'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해 박진호 교수는 서울대 저널(2017.09.04.)의 기고문에서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야민정음 같은 것도 우리 문화를 더 다채롭고 발랄하게 해주는 고마운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야민정음 식의 사용을 염두에 두었을 것 같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야민정음을 보고 꼭 분노했을 것 같지도 않다. (중략) 나이와 계층을 넘어서 한글이 자유롭고 발랄하게 활용되고 변형되어 의사소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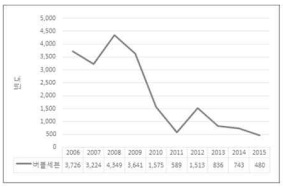
15) 이와 관련하여 남길임(2019: 37)에서는 "신어는 지칭할 표현이 마땅히 없는 새로운 사물이나 제도를 명명하는 것을 넘어서, 언중이 가지는 언어의 창조성, 새로움의 추구, 웹과 이동 통신을 통한 언어 유희의 향유 등을 보여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존재 이유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어의 다양한 기능을 국어 교육의 장으로 들여올 필요가 있다.

(10) 문제 발견하기, 자료 수집하기, 비교·분석하기, 분류·범주화하기, 종합·설명하기, 적용·검증하기, 언어생활 성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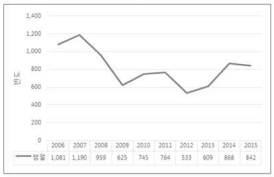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능인 (10)은 7차 교육과정 이래 국어 문법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탐구 학습’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16] 문법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탐구 학습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신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에 좋은 실제적 언어 자료이므로, 자료 수집에서부터 비교·분석, 설명, 언어생활 성찰하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험해 보기에 적절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 자료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직접 신어를 수집하고 사용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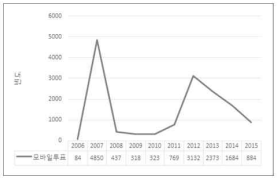
‘기프티콘’



‘버블세븐’



‘쌩얼’



‘모바일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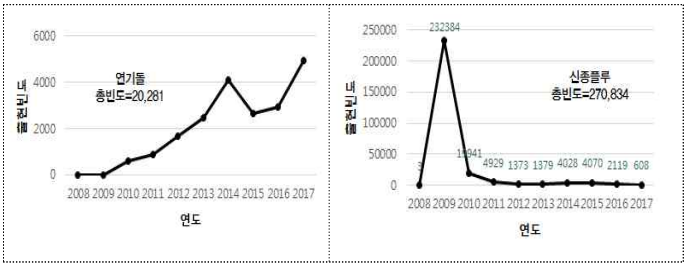
〈그림 4〉 신어의 사용 추이(남길임 · 이수진 · 최준 2017)

16) 탐구 학습(Inquiry Learning)은 첫째,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고, 둘째,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탐구의 자료가 과제로 주어지며, 셋째, 귀납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이나 규칙을 찾아낸다는 특징을 지닌다(임지룡 외 2020: 591).

17) 신어의 정착과 소멸을 조사해 봄으로써,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같은 언어 기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다시피, 신어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기프티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버블 세븐’은 사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쌩얼’은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모바일 투표’는 선거철을 기준으로 소멸과 등장을 반복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신어의 사용 추이를 살피는 것이고,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어를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다.

(11) 활동 1 : 다음 신어의 사용 추이 그래프를 보고 이러한 추이를 보이는 까닭을 이야기해 보자.[18] 다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어 중 몇을 골라 최초 출현 시기가 언제인지 조사해 보고 해당 신어의 사용 추이를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해 본 후, 왜 그런 사용 추이를 보이는지 이야기해 보자.[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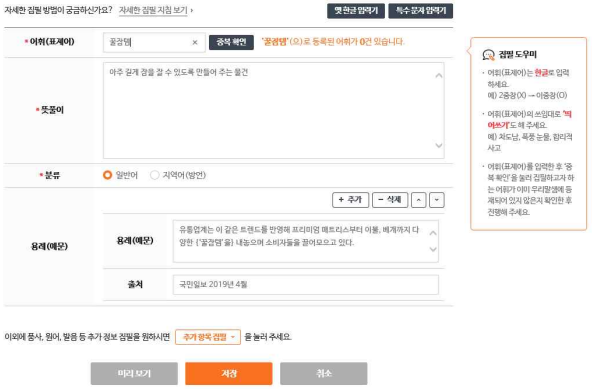


(12) 활동 2 : 다음 예를 참고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신어 가운데, 아

18) 여기에서 제시된 ‘연기돌’과 ‘신종플루’의 사용 추이는 『국립국어원의 2018년 신어 자료집』(254, 257쪽)에 수록된 것이다.

19) 이 활동은 언어학적 연구에서와 같은 정확한 사용 빈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는 54개 언론사의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www.kinds.or.kr)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어를 찾아 ‘우리말샘’이나 ‘네이버 오픈 사전’에 등록해 보자.[20]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각 항목마다 제시되는 사전 집필 도우미가 제시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11)은 신어의 사용 추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어는 임시어나 유행어로서 특정 시기에만 사용되기도 하고, 위의 <그림 4>에서 보다시피 사용이 확대되거나 소멸하기도 한다. (11)에서 제시한 활동은 신어를 통해 언어 사용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왜 어떤 신어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신어는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12)에서 사전에 신어를 등재하는 활동은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확인하는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사전을 집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사용자로서의 경험을 갖게 해 준다.

---

20) 『우리말샘』과 ‘네이버 오픈사전’은 사용자가 직접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사전이다.

3.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신어는 신어가 나타난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남길임 외(2015: 3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Williams(1976/1983)가 핵심어와 사회문화의 상관성을 제시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역사와 문화의 표시자로서 신어'(Algeo, 1991; Knowles & Elliot, 1997; Gozzi, 1990)와 '문화적 핵심어'(Strauß *et al.* 1989; Wierzbica, 1999)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신어가 당대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다음의 예를 보자.

(13) a. 교사(敎師), 우편(郵便), 전보(電報), 병원(病院), 독후감(讀後感), 초자연(超自然), 농민계급(農民階級), 동화작용(同化作用), 자연과학(自然科學), 사회문제(社會問題), 뎃상(design), 똑터(doctor), 뜨라마(drama), 모던(modern) (정한데로 2019: 15-16)
b. 양장(洋裝), 양복세민(洋服細民), 메리야쓰, 하이칼라, 핸드빽, 뿔라우스, 스카푸, 와이셔츠 (김한샘 2015: 458, 468)[21]

(14) a. 웨딩푸어, 에듀푸어, 베이비푸어, 스펙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실버푸어, 푸어공화국
b. 타조세대, 찰러리맨, 신캥거루족, 빨대족 (남길임·송현주·최준 2015: 57-59)

---

21) 김한샘(2015: 479)은 근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신어사전 분석을 통해 "의복의 공장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양복의 보급을 통해 실현된 '획일화', 서양 옷차림을 따라하며 모던함을 경외하거나 이를 질시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추구했던 '서구화', 이런 배경 속에 경제적인 부를 동반하며 새롭게 형성된 계층인 '하이칼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신어는 당대 사회의 관심사와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신어를 통해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

(15) a. 불황과 취업난 : 취준생, 헬조선, 칠포세대, 취뽀, 문송
b. 외모 중시 : 얼짱, 몸짱, 쌩얼, 쁘띠성형, 그루밍족, 패완얼
c. 남녀 연애 : 케미, 품절남, 차도남, 완소녀, 까도남, 심쿵, 썸남, 썸녀
e. 엔터테인먼트 : 먹방, 쿡방, 팩션, 쇼셜테이너
f. 재테크 : 공유경제, 앱테크, 폰테크, 저렴이 (이준영·이제성 2016: 281)

(13)은 20세기 전후의 신어로, 당시 교육·통신·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대상과 개념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양 학문과 문화의 유입 및 격변하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특히 (13b)는 20세기 초에 발간된 신어사전에 나타난 의생활 어휘의 일부로 산업화, 서구화되어 가던 한국 사회를 보여준다.

(14a)는 ‘○○푸어’는 2011년 경제 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취업난, 주택난, 사교육 문제, 노후 문제 등을 잘 보여주며, (14b)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15)는 2014년 신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으로, 불황과 취업난,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 연애, 엔터테인먼트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신어는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변화가 빠른 영역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므로, 신어는 출현 당시의 사회문화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8년 신어 조사 자료집의 고빈도 신어에는 ‘판문점 선언’과 ‘미투 운동’이 있고, 2020년 신어로는 ‘코로나19, 코로나 블루, 비대면 강의’를 주목할 수 있다.[22] 이들은 모두 출현 당시의 중요한 사회적 사건을 잘 드러낸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신어를 통해 우리

22)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비대면 강의’는 2020년 2월 25일에 최초 사용이 확인된다.

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어가 우리 사회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지 관심을 갖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음의 (16)의 내용을 제시하여 신어가 사회문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 후에 (17)과 같은 실제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하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16) '힐링'은 영어 'healing'에서 온 말인데, 영어와는 달리 힐(heal), 힐러(healer)와 같은 형태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힐링의 형태만 사용된다. 2000년대 초부터 '힐링 소사이어티', '힐링 요가', '힐링시네마' 등과 같이 주로 특정 상품명이나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사용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 '웰빙'이 중요 화두였으나, 최근 들어 '웰빙'을 넘어서 개인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고 치료받고자 하는 '힐링'이 중요시되고 있다. '힐링녀'와 '힐링남'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구를 보여 주는 신어이다.
'힐링남', '힐링녀'가 현대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선호하는 대상을 범주화한다면, '잉여'는 현대인이 기피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데 자주 등장하는 어휘이다. '잉여'라는 용어는 경제학 분야에서 '잉여 자본(surplus capital)'과 같은 학술 전문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2011년 경제위기 이후 그 사용 빈도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모태잉여인', '잉여인', '잉여족' 등으로 '잉여'를 포함한 다양한 단어들이 대표적 예들이다. '잉여'의 사전적 의미는 '쓰고 난 후 남은 것'이란 뜻으로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기술되고 있으나 실제의 함축적 의미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경우가 많다. 현재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을 경쟁에서 뒤처진 쓸모없는 존재라고 인식하여 자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남길임·송현주·최준 2015: 52-53)

(17) 활동 : 다음은 네이버에서 제시한 '2019년에 많이 검색한 신조어 랭킹 1위에서 30위까지'이다.[23] 이 단어들은 2019년 한국 사회의 어

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인플루언서, 자만추, 플렉스, 편스토랑, 무스비 번아웃증후군, 버억, 티카타카, 소떡소떡, 처돌이 스포, 얼죽아, 까멜리아, 쓰앵님, 등드름 밈, 파이어족, 꾸안꾸, 만반잘부, 나만없어고양이 유하, 학종, 유니콘기업, 존맛탱, 라떼는 말이야 몸신, 오놀아놈, 인만추, 수능금지곡, 세포마켓

신어는 단순히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선택하기도 한다.

(18) a. 임 실장은 “날짜를 강조해 **‘4·27 선언’**이 될지, 장소를 강조해 **‘판문점 선언’**이 될지 모르지만, 담을 내용을 상당히 고심해 마련 중”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2018.04.17.)
b. **판문점 선언**에는 태 전 공사가 지적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동아일보, 2018.04.28.)

(19) a. 5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연말까지 27명이었던 **우한 폐렴** 감염환자가 불과 사흘만인 지난 3일까지 44명으로 늘었다. (한겨레, 2020.01.05.)
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를 치러왔던 프로축구가 85일 만에 관중석을 개방한다. (동아일보, 2020.08.01.)
c.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폐렴’, ‘TK폐렴’**

23) 해당 웹페이지인 https://blog.naver.com/dic_master/221747738600에는 순위, 단어, 바로가기(뜻풀이 및 용례)가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한 환경일 경우, 모르는 단어 의미와 용례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일보, 2020.02.22.)

(20) a. 시민 행동요령에는 개인 위생수칙 및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행동수칙,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포함된다. (아시아투데이, 2020.02.24.)
b.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하지만 어느 때보다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숙고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신문, 2020.08.11.)
c.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물리적 거리두기**에 머물러야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로부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일보, 2020.03.17.)

(18)의 '4·27 선언'과 '판문점 선언', (19)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구 폐렴, TK 폐렴', (20)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가 동일한 사태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18)에서 '4·27 선언'은 날짜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 이전의 6·15 남북공동선언, 7·4 남북공동성명 등에서와 같이 해당 날짜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화자의 관점이 드러난다. 반면, '판문점 선언'은 날짜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갖는 '판문점'이라는 장소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 이 선언이 남북교류와 화합을 지향한다는 화자의 관점이 드러난다.[24] 따라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 명명할 때, 신어는 여러 대안적 표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언중의 관점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19)에서는 초기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것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객관화한 표현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 폐렴, TK 폐렴'과 같은 지역

24)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의 '판문점 소개'에는 '남북 교류협력의 통로, 화합의 마당 판문점'이라고 돼 있다.

집단명을 포함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지만 대체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널리 사용된다.[25] 이들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안적 표현에는 화자의 어떤 관점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지 토론해 볼 수 있도록 (21)과 같은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21) 활동 : 다음 두 글을 읽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두 표현에는 화자의 어떤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신어 가운데 몇을 골라 해당 단어가 나타내는 화자의 관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글 1〕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은 공중보건 분야에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써온 개념이다. 말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만 실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 거리두기’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휴교 조처를 내리거나, 공적, 사적 모임을 취소하는 등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권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늘 연결되어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엔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용어는 그 말이 원래 의도한 의미로부터 어긋나 이해되기 쉽다. 사회과학 용어로서 ‘사회적 거리’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들(가령 계층적으로, 지역별로 구분되는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상의 거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 자체가 집단 간의 분리를 유지하려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욕망들에 알리바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노인들같이 사회적 도움이 늘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콜센터 직원들같이 물리적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

25)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271,607건, ‘물리적 거리두기’는 3,555건 사용되어 전자가 후자에 비해 70배 이상 많이 사용된다.

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인시켜 주는 아픈 말이기도 하다. (한겨레, 2020.03.13.)

〔글 2〕
정관용: 그런데 행동백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신인류의 삶이 되어야 할까요?
최재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동안 얘기가 되니까 WHO에 계신 어떤 분이 '물리적 거리'로 고쳐 쓰자고 하더라고요. 물리적 거리라고 하면 완벽하게 2미터를 떼야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거리는 제가 제 아내나 아들과 반드시 2미터 거리를 둘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사회 구조를 보면서 가까이 있을 사람은 가까이 있고 멀리 떨어져도 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사회적 거리예요.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적절한 방역과 일상적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재천 외 2020: 34-35)

Ⅳ. 마무리

이 연구는 지금까지 신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신어를 활용한 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신어를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과목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이며 '국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에서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이라는 내용 요소로 다루어진다. 교과서의 경우, 신어가 직접적인 교육 대상 아니라 단어를 형성하는 한 방

법인 축약의 사례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어 사용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신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되지 못하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어는 형태적, 문법적, 의미적, 기능적인 면에서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신어를 단어 형성법 차원에서 형태론적 차원에서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흥미로운 어휘 자원으로서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에 좋은 실제적 언어 자료이므로, 자료 수집에서부터 비교·분석, 설명, 언어생활 성찰하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어의 사용 추이를 살펴보는 활동과 신어사전의 내용을 직접 집필해 보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셋째, 신어를 통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어가 우리 사회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어는 단순히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대안적 표현들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어에 대한 다양한 국어학 및 국어 교육적 연구 성과의 축적에서 불구하고, 오랫동안 국어과 교육에서 신어는 단어 형성법 교육의 소재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신어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절한 실제적 언어 자료로서, 언어적 특성, 탐구 학습에의 활용,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신어가 갖고 있는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방안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 정교화하는 것은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김규훈 · 김혜숙, 「담화 중심의 단어 형성법 교육 방안 - 학습자의 새말 소통 현상을 바탕으로」, 『문법교육』 제16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12, pp.1-35.

김동의 · 이상곤, 「신어를 찾아내고 의미를 기술하여 관리하는 신어 조사용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40(12), 한국정보과학회, 2013, pp.882-894.

김억조, 「인지언어학에 기초한 2017년 신어의 의미 구성 연구」, 『문화와 융합』 42(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a, pp.615-637.

김억조, 「2018년 국어 새말의 의미 형성에 관한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45집, 국제언어문학회, 2020b, pp.85-115.

김일환, 「신어의 생성과 정착 – 신문의 신어 명사를 중심으로 -」, 『한국사전학』 제24집, 한국사전학회, 2014, pp.98-125.

김일환, 「빅 데이터 시대의 신어」, 『새국어생활』 29(3), 국립국어원, 2019, pp.55-67.

김정아 · 김예니 · 이수진, 「신어의 [+사람] 어휘의 형태 · 의미적 특성」, 『어문론총』 제58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pp.51-76.

김지혜, 「신어 정착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 연구 - 「2005년 신어」 중 사회 주제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65집, 한국어교육학회, 2019, pp.359-387.

김지혜, 「신어의 정착에 기여하는 언어의 내 · 외적 요인 분석 : 2005년 신어 중 단일어를 중심으로」, 『대학교양교육연구』 3(2),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18, pp.29-54.

김태훈 · 박상진, 「신어의 정착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35집, 한국어의미학회, 2011, pp.71-98.

김한샘, 「신어사전(1934)의 구조와 근대 신어의 정착 양상」, 『한글』 제304집, 한글학회, 2014, pp.117-139

김한샘, 「신어사전에 나타난 근대 사회 문화 연구」, 『새국어교육』 제10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pp.449-482.

남길임,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 2005 · 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 『한글』 제310집, 한글학회, 2015, pp.205-233.

남길임, 「신어의 빈도와 사용 추이」, 『새국어생활』 29(3), 국립국어원, 2019, pp.25-38.

남길임,「신어의 빈도에 관련한 몇 가지 문제」,『한국어 의미학』 제68집, 한국어의미학회, 2020, pp.213-239.
남길임 · 송현주 · 최준,「현대 한국어 [+사람] 신어의 사회 문화적 의미」,『한국사전학』 제25집, 한국사전학회, 2015, pp.39-67.
남길임 · 이수진,『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남길임 · 이수진 · 강범일,「'프레임'의 언어학 -의미적 신어 '프레임'에 대한 말뭉치언어학적 분석-」,『한국어 의미학』 제65집, 한국어의미학회, 2019, pp.35-163.
남길임 · 이수진 · 최준,「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한국사전학』 제29집, 한국사전학회, 2017, pp.72-106.
남길임 · 이수진 · 최준,「웹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적 신어의 연구 동향과 쟁점」,『한국사전학』 제31집, 한국사전학회, 2018, pp.55-84.
남택승,「새말 만들기 교육의 문제와 방향」,『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10집,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6, pp.119-148.
남택승,「의미와 어종 중심의 새말 교육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노명희,「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2006, pp.31-45.
노명희,「신어에 나타나는 약어의 특징과 통합적 혼성어」,『국어학』 제91집, 2019, pp.27-56.
도원영,「국어사전의 신어 처리」,『한국어학』 제34집, 한국어학회, 2007, pp.21-45.
박선옥,「2015-2017년 [+사람] 신어의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 사람의 성향과 가치, 외모와 패션, 요리와 음식, 결혼과 육아 · 교육, 정치와 행정 · 제도 분야 -」,『문화와 융합』 41(4),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pp.977-1008.
박형익,「1910년대 출간된 신어 자료집의 분석」,『한국어학』 제22집, 한국어학회, 2004, pp.153-183.
박혜진,「'새말 만들기' 과제 설계에 대한 연구」,『문법 교육』 제30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17, pp.67-100.
박호관,「청소년들의 신조어 생성과 형태의 기능 변이: 서울과 대구 지역고교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우리말글』 제35집, 우리말글학회, 2005, pp.75-106.
문금현,「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국어학』 제33집, 국어학회, 1999, pp.295-326.

문금현,「신어 생성의 최근 경향 분석 – 극한표현을 중심으로 - 」,『어문학』 제145집, 한국어문학회, 2019, pp.151-177.

서혜진,「신어 미정착의 원인에 대한 소고 - 2008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제61집, 한국어의미학회, 2018, pp.33-53.

이삼형 · 김창원 · 양정호 · 안혁 · 하동원 · 박찬용,『언어와 매체』, 지학사, 2019.

이수진,「한국어 신어 사용 추이 조사 방법론에 대한 고찰 – 2015~2018년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를 중심으로-」,『언어사실과 관점』 제50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0, pp.399-424.

이수진 · 김예니,「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한국사전학』 제23집, 한국사전학회, 2014, pp.232-262.

이선영,「국어 신어의 정착에 대한 연구」,『한국어 의미학』 제24집, 한국어의미학회, 2007, pp.175-195.

이선영,「외래어 신어의 몇 가지 양상」,『국어학』 제87집, 국어학회, 2018, pp.117-144

이유원,「사전과 신어 - 국립국어원《우리말샘》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29(3), 국립국어원, 2019, pp.39-53.

이현정,「한국어교육을 위한 신어 조어소 선정 연구 - 신어 조어소의 조어력 및 빈도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제36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5, pp.99-121.

임지룡 · 박채형 · 송영민 · 장명희,「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8학년 2학기 ‘낱말 형성법’ 단원의 새말 만들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8집, 국어교육학회, 2005, pp.149-192.

임지룡 · 이은규 · 김종록 · 송창선 · 황미향 · 이문규 · 최웅환,『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개정판)』, 박이정, 2020.

전승태,「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신어 교육 내용 비교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전명미 · 최동주,「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2002 · 2003 · 2004 신어를 대상으로」,『한민족어문학』 제50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 pp.37-70

정한데로,「신어의 형성과 빈도 변화에 관한 일고찰: 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한글』 제310집, 한글학회, 2015, pp.171-204.

정한데로,「신어의 삶에 관한 탐색 - 2002년~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국어학』 제83집, 국어학회, 2017, pp.119-152.

정한데로,「신어의 탄생, 사회와 문화를 담다」,『새국어생활』29(3), 국립국어원, 2019, pp.9-23.

최신인 · 최은정,「신문기사의 신조어 재현 양상 연구」,『새국어교육』제102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pp.215-243.

최재천 · 장하준 · 최재붕 · 홍기빈 · 김누리 · 김경일 · 정관용,『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2020.

최혜원,「사회 변동에 따른 어휘 변화 -국립국어원 신어 사업을 중심으로-」,『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pp.37-50.

최형용,「의미 관계와 신어 형성」,『한국어 의미학』제66집, 한국어의미학회, 2019, pp.35-74.

최형용 · 강영준 · 권태윤 · 박재연 · 박종오 · 소신애 · 송찬욱 · 오세호 · 임요한,『언어와 매체』, 2019, 창비.

현영희,「신어의 정착 양상 연구」,『언어과학연구』 제78집, 언어과학회, 2016, pp.381-400.

Algeo, J., Where Do All the New Words Come from, *American Speech* 55(4), 1980, pp.264-277.

Gozzi, R., *New Words and Changing American Culture*, Columbia: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0.

Knowles, E. & Julia, E., The *Oxford Dictionary of New Words*.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1997.

Strauβ, G., Ulrike H. & G. Harras., *Brisante Wörter von Agitation bis Zeitgeist: ein Lexikon zum öffentlichen Sprachgebrauch*,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9.

Williams, R.,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6/1983.

Wierzbicka, A., *Emotion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Diversity and Universals*,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Abstract

Teaching Korean Language with 'Neologisms'

Song, Hyun-ju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urricula and textbooks has revealed that the subject 'Language and Mass Media' of the 2015 curriculum, uses neologisms as the objects of study and addresses 'word composition and new word formation' within the domain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Korean language'. Nonetheless, the neologisms are not exactly the direct objects of the study in the textbook, but rather examples of the abbreviation, which is one method for word formation. Additionally, it emphasizes that neologisms may cause communication issues and thus should be used with caution. The limitation here is that it does not fully exploit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neologisms. This study seeks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by suggesting three methods fo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maximize the use of neologisms based on the results of neologism research.

First, the neologisms can show various aspects of the language in terms of morphology, grammar, semantics, and functionality. Thus, as an interesting resource of the vocabulary used in practical language, neologisms should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be seen from various perspectives, rather than from the sole morphological perspective.

Second, since the neologisms are practical language data that can attract the interest of students, teaching contents must be organized to allow the experience of all the processes involved in the language study, starting from the data collection to comparison and analysis,

explanation, and reflection on language. Learners can thus look into neologism usage trends and experience the writing of word definitions for a neologism dictionary.

Third, teaching contents should be organized to examine what characteristics of our culture and society current neologisms can teach us. Also, as neologisms do not merely serve to reflect the realities of our time, teaching contents should also show that neologisms also reflect and select the views of language users.

Key Word : neologism, Korean language education, language and medium,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quiry learning,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송현주
소속: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전자우편: camus0101@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8월 17일 투고되어
2020년 9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9월 15일 게재 확정됨.